

주일에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0월 16일 (제1171호)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위로자

2주 전, 서울교회는 KBS88체육관의 사정으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육관과 기도처,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땠을까. 성도들 앞에서야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입술이 터지도록 고심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이제는 성전을 달라고.

그런데 지난주 어느 장로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 “목사님, 성전 때문에 너무 걱정 마세요. 목사님 안 계시는 게 문제지, 성전 없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덕분에 모처럼 기도처에서 주일에배 후 구역식구들과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식사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어떤 성도는 “목사님, 성전 짓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꿔요. 그러니 성전 지으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죠.”라고도 했다.

나는 성도들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성도들은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동지이며,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위로자이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나는 행복한 자다.

웁이 위경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충고만 한다. 그들의 충고는 다 옳고 맞는 말이였다. 그러나 웁에게는 충고가 아닌 위로가 절실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것은 그들의 충고가 틀려서가 아니라 위로하지 못했기 때문이였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후1:3~6).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신다. 상처는 부드러운 것으로 먼저 싸매줘야 함을 잊지 말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그분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해외집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현지인들은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곧 깨닫고 크게 박수를 치곤 한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실 때 항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소개하신다. 이번 수요일예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시며 “내가 연구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5절에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밝히 드러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혈육이 있다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 38년 목회에 나는 내 부모, 형제, 처자, 친구들, 그리고 권력자들, 아는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망신당한

다. 오로지 하나님께 얹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바껴서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나는 많은 권력자들, 재력가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들의 말로가 파멸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니 훗날 순간 바람에 날려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권력자나 재력가가 몰려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88체육관 예배광경)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에 후회가 없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나를 자랑하고 시인하면 나도 너를 자랑하고 시인한다(마10:32)고 하십니다. 내가 38년 목회하며 연구한 하나님,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스스로 하신 말을 그대로 지키시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들고 그대로 쏟아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연구한 하나님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가 있나?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염려한다고 한 자의 키를 크게 할 수 있나(눅12:25)?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운전중 해주던 집사가 면허기한이 지난 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면허취소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고위직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의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권력 있는 친구를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잠실학생체육관 사용을 위해 권력자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체육관 실무자들이 반대해서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기도원 건축 문제로 기도원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역시 권력자에게 부탁했더니 오히려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권력자나 재력가들에게 마음을 뺏겨 그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해지는 사람을 솔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이 청청한 것같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렘17:7~8)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성도들과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을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146:3~4).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2:49~53)



돈과 무기를 쥐도 활용 못한다면 답답한 자가 누구일까?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며칠 동안 길을 헤매다가 산중에 있는 낡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지요. 그 집에는 백발의 구부정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탈진한 그를 따뜻한 방안으로 들어 변변치는 않지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하산한 그는 생명의 은인에게 꼭 은혜를 갚아야겠다 생각하고는 엄청난 금액이 적힌 수표를 부하직원을 통해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급한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아쉬움에 집안을 둘러보면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준 거액의 수표가 문풍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수표가 뭔지 몰라서 수표에 밥풀을 발라 바람막이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 저걸로 치료하고 잘 잡수셨으면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성령 충만만이 인생의 답이다

돈의 가치를 모르면 돈을 쥐도 이 할머니처럼 가난하고 궁상맞게 살다 갑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알면 그것으로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요삼1:2).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병기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천단의 연장을 주셨는데 그걸 들고도 사용하지 못하니 답답해하십니다. 가치와 사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에게 패배하고 있고, 적에게 당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가슴을 치십니다.

‘적은 뭐고, 무기는 무슨 무기야?’ 하십니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전시상태에 있습니다.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영혼이 살고 죽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엡6:12). 당연히 적과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성능이 좋아야겠지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

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4~5).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6:7).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들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니 의롭게 살게 하시고, 또 다양한 은사를 주

셔서 그것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하시니 이 세상에서 복

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이 복 중의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니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무기와 연장을 들고도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귀신의 밥이 되어 살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 풀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아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지, 맨날 귀신이라.” “다 귀신이야? 그럼 병들 사람 하나도 없게? 그럼 못 살 사람 하나도 없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 귀신입니다. 감기에서 암까지 병은 다 귀신이 주는 것이고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귀신이고, 다투게 하는 것도 귀신이고, 일이 안 되는 것도 다 귀신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하고요, 우리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귀신만 쫓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 받아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좋아할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돈은 좋아하면서 아닌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고 징계를 당하시고, 우리를 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는데(사53:5),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는데(고후8:9) 당연히 잘 살고,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지요. ‘부모가 고생 하셔서 날 키

웠는데 어찌 나만 호강할까? 나도 부모님처럼 고생해야 마땅해.’ 한다면 부모 속 터지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마시다. 하긴 늘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답답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병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거품을 흘리며 거꾸러지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시끌시끌한 것을 보시고 무슨 일이나 하시니, 제자들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눅9:19).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스승인 예수님처럼 해야 하건만, 안 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답답하셨을 수밖에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겁에 잔뜩 질려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마8:25). 그들의 호들갑에 잠에서 깬 예수님이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8:26). 스승을 따라 하면 됩니다. 따라 하다 보면 배우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요14:12). ‘예수 이름으로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명령하면 됩니다. 왜 배운 대로 안 합니까? 왜 가르쳐주신 대로 안 합니까? 여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무슨 논리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선물을 주는데도 안 풀어보고, 쓰지 않는다면 주는 자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12:49). 성령을 받으면, 성령충만을 입으면 다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실 일이 없어요. 부활 후 그분이 다시 아버지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걱정되어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한 번 성령 받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자들 말도 듣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고 했습니다.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살전5:17). 성령이 소멸되면 좋은 가졌으나 총구가 막힌 격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총을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총알을 쏘아대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받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총 정도가 아니라 대포를 평평 쏘는 격이 되어 악한 것들이 삼십육계 도망을 칠 것입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성령을 잃는 것은 아성을 잃은 호랑이 짝이 나는 겁니다. 산중을 호령할 수 있는 호랑이가 사람 손에서 재롱이나 부리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하나님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까지 버티고, 또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것은 우방에서 지원된 무기가 좋고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인생에서 최고의 나침반이요, 지침서요, 최고의 무기와 연장입니다. 이것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들지 마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변화, 지금 당장 시작하자!

수원대 인근의 한 식당.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져 가게 유리창을 깨뜨려놨다. 며칠이 지났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식당 문을 닫았던 탓일까? 깨진 유리창을 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식당 유리창은 또 다른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말았다. 유리창이 죄다 깨지고 만 것이다! 그렇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남아 있는 유리창마저도 위험해진다! 범죄 행동을 연구하던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은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이라고 명명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의외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두 사람이 남의 집 문 앞에 내다 버린 쓰레기봉투로 인해 어느샌가 그 장소가 쓰레기가 잔뜩 쌓인 쓰레기장이 되기도 하고, 저 식당처럼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버린 순간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마음의 창은 또 어떨까? 당신의 관심이 떠나 이를 방치해버리는 순간, 악한 것들이 자기 멋대로 당신의 마음을 유린하고 말 것이다. 방치된 삶은 이렇게 위험을 초래한다! 내 집 앞의 잔디는 내가 관리해야 한다. 내 마음의 창 또한 내가 관리해야 한다. 더 이상 악한 것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기 싫다면 지금 당장 관리하자!

이 세상에는 여러 계산법이 존재한다. 산수에서는 ‘1+1=2’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에디슨은 ‘1+1=1’이라고 했다. 물방

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 서로 엉켜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시너지 효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1+1=3’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총회장님께서는 ‘100-1=0’이라고 가르치셨다. 사소한 실수 하나, 인격의 흠결이 결국은 그가 가진 가능성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변화(變化)’라는 한자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 ‘變(변할 변)’은 ‘蠡(어지러울 려)’자와 ‘夊(쫓아 박)’자가 만나 만들어졌다. 그리고 ‘化(뮐, 가르칠 화)’는 ‘人(사람인)’자와 ‘匕(비수 비)’자가 어우러져 형성되었다. 무슨 의미일까? ‘絲(실, 실 사)’ 사이에 끼어 있는 ‘말(言, 말쑤 언)’을 엉켜 있는 그대로 ‘어지럽게(蠡, 어지러울 려)’ 두지 말고 속되고 부정한 말들을 계속 내리쳐(夊, 쫓아 박) 교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수로 찌르는 것과 같은 거친 말과 행동을 계속 내리쳐 교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성질이 변하고 본성이 바뀌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 이로라.”

변화, 더 이상 결단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깊은 곳에서의 울림::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진실아,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단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마라.’ 기도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은화하고 분명한 음성. 한참을 울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를 잠시 회상해봅니다. “종교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수년 전, 어떤 분의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NO라고 대답하였지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했던 저는 성령을 소멸하자 순식간에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던 ‘나’에게 있었습니다. 기도 줄이 끊기자 영이 어두워져 세상을 좇기 시작하였고, ‘성령을 소멸하면 인간의 본성이 나온다’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오래 참음, 절제는 온데간데없고 부정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던 2018년 10월 말, 저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첫 번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외상이 없었기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 갑자기 전신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나날이 극심해지는 고통 가운데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신호’일 수 있다는 한 줄

기의 생각이 마침내 퇴사를 결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른 2019년 11월. 저는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꼭 보아라.’ 주님을 떠난 뒤 처음으로 접한 메시지는 ‘돌아온 자의 축복과 기쁨’. 갑자기 귀가 열리며 들리기 시작한 말씀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무릎을 꿇자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저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셨던 그때의 은혜와 감격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저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신지요? 죄의식에 눌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신지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해주시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뿐이라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5:19).

김진실 사모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연장은 쓰지 않으면 녹는다. 은사는 쓰지 않으면 녹는다.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에게 잡힌다.’라고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2~3년 정도 매일 사용하다가 2~3개월 정도 사용하지 않던 영상장비가 있다. 다시 사용하려고 했더니 장비 상태가 엉망이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깐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점검을 받고 나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원 대성전 뒤편에 있는 녹슨 중장비를 비유로 자주 말씀하신다. 그리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도, “내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 이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안다. 사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세계 모든 사람이 안다.”고 말했다. 매일 사용하는 것, 매일 반복하는 것에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다. 반복하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고 반복하기를 멈추거나 매일 하는 기도, 하루쯤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복하지 않으면 곧 녹슬어 버리고 만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되거나 막히는 경우가 많다.

숨쉬기를 멈추면 죽듯 기도도 멈추면 죽는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은성 생도



:: 생명의 말씀 ::

인생무상 (人生無常)

며칠 전 정말 좋아했던 형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수십 년 교제의 세세한 표현은 관두자. 그분은 세칭 일류학교를 나오고 집안도 평평거리는 명망 있는 집안의 자식이였다. 대기업의 해외 영업부장을 하던 장래가 보장돼있는 사람이였다.

어느 날 회사를 사직하고 퇴직금마저 주위의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무소유의 삶을 시작했다. 배고픔과 주위의 여러 어려움들을 생사를 벗어나고 싶은 열정으로 이겨나갔다. 그런 과정에 압도 걸렸지만 이겨내며 오로지 구도심으로 버텼던 삶이였다. 너무나 순수하고 선하며 감성적이었던 그분. 그러나 수행만은 철저한 분이셨다. 우리 집에 머물 때도 잠시도 자지 않았다. 거실의 소파에 앉아 수마와 싸우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분도 오십 넘어 행자승으로 불가에 의탁했다. 내가 55세에 신학교 입학한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 그런 분이려면 불교계에서는 큰 스님으로 추앙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학식도, 사랑도, 자기희생도 남달랐던 분이다.

그러나 어쩌랴. 그 모든 특별함과 인격

도 죽음 앞에선 홀로 버려진 나뭇잎과 같이 바람에 뒹굴고 찢겨나갈 수밖에 없으니. 세상의 모든 가치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워낙 신념과 자기 긍지가 강한 분이랴 말 한마디 건낼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모두 버리고 오로지 생사 해탈의 염원으로 고행을 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린다. 존경받아야 할 모든 덕을 두루 갖췄지만 정작 생사해탈의 키를 쥐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것이 많이 아쉽다. 생사해탈과 영생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갖춰도 그 길은 선택 받아 가는 길이고 의탁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의지 하나로 태산과 같이 덮치는 죽음의 파도를 어찌 넘을 수 있을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갈 수 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 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이광주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에디슨이 처음 만든 전구는 얼마나 불빛이 희미했던지 촛불을 함께 밝혀야 했고,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는 공중에 12초 밖에 머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첫 결과물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다 보니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기와 비행기가 되었지요.

이처럼 진보는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 믿음 위에 노력을 쌓는 자의 것’이며, 이를 위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 보다 내일 더 진보하리라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짐 위에 노력이 더해지고, 인내가 스며들고, 시간이 쌓이면 마침내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성경 속 선진들 역시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도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은 인물로 성장해있었다는 점

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므로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죄수의 순간에도 노력하여 죄수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지요. 결국 그 통솔능력이 점점 성장하여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던 가족을 향한 개인적인 미움보다 가족과 민족을 구원코자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노예이니 노예처럼 살고, 죄수이니 죄수처럼 살았다면, 설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총리로 만드신다고 한들 제대로 된 통솔력과 그릇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외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당시, 자신의 그 하찮아 보이는 임무가 훗날 어떤 쓰임새로 다가올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키는 양들을 맹수로 부터 잘 보호하려는 열심으로 물땀을 던지는 훈련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 노력과

경험들이 성장하여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까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함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단지 자기만족이나 자기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역자들에게는 도전과 새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장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성장시키신 그 모든 역사들을 산 위에 등불이자 만민에게 본이 되어 세상 앞에 드러냅시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기꺼이 달려갑시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말씀의 은사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앞에 한 문구점이 있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이 문구점을 기억하는 이유는 주인아주머니가 늘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자 이조석 목사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힘 있는 설교는 나를 늘 그 문구점으로 향하게 했다.

당시 나는 경기도 소도시 평택에 살았는데 서울도 아닌 지역에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문구점 아주머니가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늘 듣고 있는 게 신기하고 놀라워 다른 문구점보다 허름했지만 자주 이용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께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저 이 교회에 다녀요!”, “오! 이 교회를 다닌다니 넌 정말 복 받았구나! 주일마다 서울로 올라간단 말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화용품을 하나 더 주셨다.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설교테이프가 아주머니의 기쁨이라며 늘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들으셨다.

요즘, 신학교 ‘설교학’ 시간을 통해서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통한 말씀의 은사를 배우고 있다. 목사님의 목회 성장에는 귀신을 쫓는 능력과 더불어 불꽃 같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배웠다. 이에 강의를 들으며 초등학교 때 만난 아주머니가 떠올랐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는 오대양 육대주, 지구 반 바퀴를 넘어 지방 소도시에도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의 설교를 가지고 OSMU(원 소스 멀티 유즈: One source multi-use: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는 한 편의 설교 후 홍집언, 교회신문, 오디오 설교, 비디오 설교, 1분 설교, 봉우칼럼 영상, 카드뉴스, 블로그 까지 제작되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의 은사로 인함이다. 이런 목사님과 한 교회 안에서, 한 세대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다. **송현혜 생도**

JC ACADEMY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랑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박 대위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 찾아와 그와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했습니다. 박 대위가 본인의 업무를 다른 이에게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할 뿐 박 대위에 대한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박 대위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기에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급 부대의 훈련을 위해 참모단의 실무자로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깊은 지하 병커에 들어가 밤새워가며 고생하는 일이라 모두가 기피하는 분위기였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했습니다. 훈련 준비 기간에는 홀로 임무를 감당하다가 몇 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진행되는 본 훈련에 파트너로 박 대위가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직책상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박 대위의 당연한 임무였으나 그는 자신이 선택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곧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 대위가 근무 중에 상급자의 중요한 지시를 못 들은 척하며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꾸중을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스스럼없이 저에게 뒤집어씌웠고, 이전에 그를 먼저 겪었던 동료들이 저에게 하소연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박 대위

에게 항의한다고 해도 다툼만 될 테니 이 상황에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일을 수습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박 대위에게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교대시간과 상관없이 남아서 중요한 일은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는데, 지켜보던 주위의 타 병과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책임감도 없는 데다 불평불만과 짜증 섞인 말만 늘어놓는 박 대위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훈련이 있어 계속 마주쳐야 했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친절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생하는 것이 늘 불만이었던 박 대위는 결국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부대장님을 찾아가 여러 핑계를 대며 자신을 훈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될 줄 알았던 박 대위와의 고통스러운 시간도 그렇게 끝맺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 칭찬 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박 대위와 비교되어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더욱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일로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적응력을 키우고, 마음을 더 넓혀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는 극심한 고생 속에서도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 복수심을 품지 않았 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고통을 주는 사람과 상황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그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힘겨운 사람과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동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애3:33).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정명관 집사**